

1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수산물 수입동향

○ 2012년 11월 일본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8.8% 감소 ('11년 11월 수산물 수입액은 156,865,043천엔)
(단위: 천엔, %)

구 분	'12년 11월 당월		'12년 1-11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127,319,155	△18.8	1,373,168,826	4.6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엔, %)

품목	'12.1~11월	'11.1~11월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전체	1,373,168,286	1,312,158,159	4.6	중국	240,117,446	칠레	122,321,295	태국	115,964,677
◦가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4,589,592	4,833,571	△5.0	인니	2,918,814	필리핀	798,783	파푸아뉴기니	212,101
◦참치류(신선,냉장,냉동)	166,868,958	164,594,186	1.4	대만	318,963,923	한국	20,764,118	호주	13,668,866
- 날개다랑어	4,379,239	5,019,819	△12.8	대만	1,873,397	바누아투	717,650	미국	514,374
- 황다랑어	25,857,623	25,329,870	2.1	대만	7,169,911	인니	3,129,386	한국	2,151,027
- 참다랑어	29,933,197	36,372,531	△17.7	크로아티아	5,982,582	타이완	4,584,180	스페인	4,477,710
- 눈다랑어	65,214,040	56,068,075	16.3	대만	29,073,331	중국	7,128,912	인니	6,922,739
- 남방다랑어	15,450,101	16,899,465	△8.6	호주	12,798,723	한국	985,754	뉴질랜드	896,711
◦청새치(황새치포함) (신선,냉장,냉동)	7,010,404	5,527,516	26.8	인니	1,937,667	대만	1,849,329	중국	888,362
- 황새치	4,785,160	3,797,716	26.0	대만	1,406,187	인니	980,793	중국	796,045
◦활 넙치(030199220)	2,714,859	2,915,064	△6.9	한국	2,714,859	-	-	-	-
◦방어(신선,냉장,냉동)	9,898	118,331	△91.6	한국	8,731	중국	1,167	-	-
◦도미(신선,냉장,냉동)	135,691	122,089	11.1	한국	25,688	뉴질랜드	612,677	기니	21,229
◦삼치(신선,냉장,냉동)	2,021,213	2,212,195	△8.6	한국	1,999,217	중국	14,843	피지	3,710
◦금눈돔(냉동)	2,443,451	1,702,578	43.5	크로아티아(뉴질랜드)	1,077,620	뉴질랜드	612,677	한국	288,039
◦복어(신선,냉장,냉동)	1,487,323	1,052,550	41.3	중국	1,468,399	한국	18,924	-	-
◦오징어(活,신선,냉장,냉동)	41,207,412	37,924,172	8.7	중국	12,063,693	태국	10,704,002	베트남	6,308,629
- 몽고오징어	12,737,011	10,913,426	16.7	태국	4,559,603	베트남	2,705,414	모로코	1,871,130
- 오징어(몽고제외)	28,470,401	27,010,746	5.4	중국	12,057,604	태국	6,144,399	베트남	3,603,215
◦전복(活,신선,냉장,냉동)	6,563,229	5,729,214	14.6	한국	4,177,929	호주	1,297,571	중국	440,516
◦굴(活,신선,냉장,냉동,훈제)	2,519,025	2,965,528	△15.0	한국	2,320,662	뉴질랜드	81,704	호주	59,627
- 굴(活,신선,냉장)	519,381	-	-	한국	452,816	호주	25,565	미국	20,893
- 굴(냉동)	1,930,495	-	-	한국	1,798,697	뉴질랜드	81,704	호주	34,062
- 굴(훈제)	69,149	-	-	한국	69,149	-	-	-	-
◦패주(活,신선,냉장,냉동)	893,901	893,314	0.1	한국	482,020	중국	389,983	필리핀	21,898
◦바지락(活,신선,냉장,냉동)	5,306,281	4,323,901	22.7	한국	2,750,701	중국	2,555,580	-	-
◦염건 수산물	53,095,182	49,738,080	6.7	중국	16,880,113	한국	10,716,100	칠레	6,275,892
- 건조김	2,281,384	1,308,723	74.3	한국	1,602,893	중국	678,491	-	-
- 톳	2,852,134	3,111,253	△8.3	한국	1,903,191	중국	938,943	-	-
- 미역	8,262,378	10,939,984	△24.5	중국	5,947,572	한국	2,311,606	이집트	3,200
◦게 조제품	19,500,806	17,614,279	10.7	중국	12,667,219	한국	3,565,843	인니	1,926,915
◦한천	3,360,280	3,032,305	10.8	칠레	1,600,071	한국	844,504	모로코	378,550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 수입동향

• 김

- 지금까지 한국산이면 한국산품의 맛김용의 원료 또는 완성품의 수입에 사용되었던 IQ범위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로는 한국산 방사무늬김(일본산과 규격·종류가 같음)을 수입하기 위한 신청이 쇠도하고 있음. 수요자 할당의 입찰회도 작년과 올해는 전량성립. 2~5%로 침체되었던 성악율이 회복되었음.
- 해외산(한국, 중국)의 총수입량은 10억매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김 수요량 83억매의 12%를 차지.

• 굴

- 한국산 굴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히로시마를 주산지로서 하는 일본산 굴 수확량이 성장 부진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어짐. 무역통계에 의하면, 10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26.8% 증가한 290톤이었음. 11월도 생산량의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아 한국산 굴이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 굴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1달러정도 싼 가격임. 10월에 수입한 한국산 굴 중 신선 굴은 150톤이며, 평균 kg 당 단가는 813엔임. 냉동은 132톤으로 평년 시기와 비교하여 많음. 미국 수출 금지 등으로, "한국 측은 냉동 채고 300~40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정보도 있어 향후 증가가 예상됨.

2012년 11월의 어개류수입 (무역통계, 속보)

(증감은 전년동월비·단위·%)

- 재무성이 12월19일에 발표한 무역자료(속보치)에 따르면 어개류의 수입은 19만 9,330톤, 1,200억6,700만엔으로, 작년동월과 비교하면 수량 19.2%, 금액 17.6%로 대폭감소 하였음.

국가·지역	어개류			
	톤	증감	백만엔	증감
미국	24,879	4.5	13,488	-0.3
EU	3,571	-28.6	2,103	-46.1
아시아	102,515	-16.1	62,906	-13.3
중국	38,307	-16.2	22,021	-10.7
아시아NIEs	13,669	-4.9	9,206	-20.1
ASEAN	43,644	-16.9	28,086	-10.3
중동	395	3.7	234	-0.5
러시아	14,942	2.6	12,378	-2.2
합계	199,330	-19.2	120,067	-17.6

* 아시아가 중복되어 있어 합계가 맞지 않음.

○ 자국 생산

1) 콩치

-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와테, 미야기 양현의 주용 4어항에서 콩치의 어획량이 2011년을 상회하였음. 콩치는 산리쿠 근해의 어업을 대표하는 생선 중 하나로 항구의 복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였음.
- 주요 4어항 【이와테의 미야고어항(미야코시), 오오후나토어항(오오후나토시), 미야기현의 키센누마어항(키센누마시), 오나가와어항(오나가와초)】의 어획량은 약 6만1,961톤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53% 증가하였음.
- 반면, 지진전의 2010년과 비교하면 각어항의 어획량은 6~40%감소함. 또한 가동을 재개하지 못한 수산물가공공장도 많아 콩치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지진전 수준까진 도달하지 못했음.

2) 굴

-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위가 심해져 굴의 소비량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음. 그러나 각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등의 보도가 연달아 되며 생식용을 중심으로 매출(소비량)은 예년과 비교하여 10%에서 15%정도 감소.
- 슈퍼·양판점에서도 가열용이나 냉동굴, 굴튀김 등을 취급하는 움직임으로 보임. 판매가격도 10%에서 20%정도 고가로 거래되었지만 예년과 비슷한 가격으로 진정되었음.
- 굴의 일본 국내 최대 생산지인 히로시마에선 수온의 저하로 굴의 생육이 더뎠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외의 결과를 보인 곳은 효고현으로 생육의 진행도 크기도 예년과 변함없어 호조한 판매가 계속되고 있음.

3) 새조개

- 천연 새조개 유력산지인 이시가와현 나나오만(七尾湾)에서는 양식 새조개 6,000개를 육성하는 실증실험이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13년 초여름에 수확되어 샘플 출하와 시험판매가 실시될 예정임.
- 이 사업은 현 수산종합센터 협력으로 어업자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임. 만(灣) 내에서 이루어지는 굴 양식 이카다(가두리)를 유효하게 활용 가능한 것도 이점이며 JF 이시가와는 이 시기에 공판사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냉동수산물 재고량

- 수산청어정부가공유통과가 발표한 '12년 11월의 냉동수산물 유통통계(전국주요냉장고)에 의하면 '12. 11월말의 수산물재고량은 96만3,928톤으로 전년동월비 2% 증가하였음.

‘12. 11월말의 재고량

	월말재고량(t)				
	합	산지	소비지	전월비(%)	전년동월비(%)
수산물합계	963,928	450,150	513,778	100	102
신선품	997	689	308	95	130
냉동품	827,627	393,056	434,571	100	101
다랑어류	45,317	42,308	3,009	97	104
날개다랑어	10,162	10,110	52	92	120
눈다랑어	14,829	14,473	356	97	154
황다랑어	11,013	10,727	286	105	85
참다랑어	2,207	1,932	275	90	62
남방다랑어	1,923	1,902	21	92	71
그 외의 다랑어류	5,183	3,164	2,019	100	85
청새치류	2,584	2,153	431	98	127
가다랑어	23,717	23,546	171	101	118
연어류	93,986	35,984	58,002	95	116
송어류	17,344	1,049	16,295	95	109
청어	6,775	5,294	1,481	84	65
정어리류	21,159	15,941	5,218	84	92
정어리	13,210	9,378	3,832	87	88
그 외의 정어리류	7,949	6,563	1,386	79	100
전갱이	27,305	20,299	7,006	98	97
고등어류	55,492	39,709	15,783	106	98
꽂치	37,070	31,851	5,219	104	79
가자미류	18,890	4,736	14,154	98	113
대구	7,939	2,151	5,788	110	93
명태	1,755	1,124	631	86	61
도미류	7,482	4,145	3,337	109	169
그 외의 어류	153,043	51,272	101,771	101	103
조개류	31,882	11,962	19,920	96	104
새우류	73,587	1,537	72,050	106	99
오징어류	72,174	46,227	25,947	104	82
문어류	15,969	2,533	13,436	97	123
그 외의 수산동물류	38,042	10,015	28,027	103	103
고래	5,046	582	4,464	96	103
연육	70,069	38,638	32,431	99	122
염장품	61,163	21,818	39,345	97	103
수산가공품	74,141	34,587	39,554	102	102

○ 소비동향

- 총무성이 발표한 11월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1세대당의 식량 지출금액은 전년동월비 0.8%감소의 7만122엔 이었음. 어개류의 지출금액도 1.9%감소의 6,218엔으로 전년을 하회하였으며 그중 신선어개류의 지출금액은 4.8% 감소의 3,456엔, 구입량은 3.2%감소의 2,517g이었음.

• 구입수량 대폭 증가 품목

- 연어 7.6%증가, 고등어 17.6%증가, 방어 4.5%증가, 게 52.4%증가의 4품목이었음. 연어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쉬운 저렴한 상품의 진열되고 있으며, 고등어는 태평양의 국내 고등어가 풍어로 유통업체에서도 진열공간을 넓혀 구입량이 17.6%증가로 크게 소비를 늘리고 있음. 52.4%의 증가율을 보인 게는 러시아산의 대량입하증가로 인해 연말전부터의 빠른 소비 촉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로 나타났음.

• 구입수량 대폭 감소 품목

- 전갱이 23.6%감소, 정어리 44.0%감소, 가다랑어 14.5%감소, 가자미 3.3%감소, 꽁치 28.2%감소, 도미 7.1%감소, 오징어 28.9%감소, 문어 5.0%감소, 새우 18.6%감소로 9품목이었음. 정어리는 전국적으로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출하량이 줄어 지출금 37.8% 구입량 44%감소로 크게 침체되었음.

품 목	금액(엔)			구입량(g)		
	2012	2011	전년대비(%)	2012	2011	전년대비(%)
【소비지출】	273,953	273,763	0.1	-	-	-
【식 량】	70,122	70,657	△0.8	-	-	-
【어 개 류】	6,218	6,340	△1.9	-	-	-
< 신선어개 >	3,456	3,632	△4.8	2,517	2,600	△3.2
(선 어)	3,105	3,275	△5.2	2,289	2,370	△3.4
참다랑어	373	374	△0.3	167	162	3.1
전갱이	82	96	△14.6	81	106	△23.6
정어리	23	37	△37.8	28	50	△44.0
가다랑어	72	81	△11.1	47	55	△14.5
가자미	95	102	△6.9	88	91	△3.3
연어	353	344	2.6	268	249	7.6
고등어	101	97	4.1	127	108	17.6
꽁치	96	128	△25.0	145	202	△28.2
도미	69	81	△14.8	39	42	△7.1
방어	307	302	1.7	210	201	4.5
오징어	153	198	△22.7	167	235	△28.9
문어	75	75	0.0	38	40	△5.0
새우	202	250	△19.2	127	156	△18.6
게	202	197	2.5	96	63	52.4
그 외의 선어	579	592	△2.2	453	411	10.2
생선회	323	323	0.0	125	125	0.0
(조 개 류)	352	357	△1.4	229	233	△1.7
바지락	54	63	△14.3	55	64	△14.1
가막조개	30	33	△9.1	25	24	4.2
굴	155	158	△1.9	78	78	0.0
가리비	97	20	16.9	55	43	27.9
그 외의 조개	15	20	△25.0	13	16	△18.8
< 염건어개 >	1,200	1,179	1.8	743	714	4.1
염연어	173	155	11.6	153	127	20.5
대구알	213	203	4.9	66	65	1.5
말린전갱이	76	79	△3.8	71	71	0.0
기타	36	30	20.0	18	16	12.5
< 어육제품 >	739	723	2.2	-	-	-
< 기 타 >	822	805	2.1	-	-	-

*기타는 카츠오부시, 젓갈류, 캔 등 그 외의 가공식품

○ 시장 현황

• 다랑어류

- 수산청은 12월 14일, 11월말 개최한 ‘2012년도 제2회 다랑어 수급협의회의 제3차 예측부회’의 결과를 발표. 2012년 횡감용 다랑어 공급량은 일본 선박에 의한 어획과 수입을 포함하여 총 34만 6,000톤이며 전년 대비 3만 4,000톤 증가.
- 반입은 일본 선박에 의한 생산이 약 17만 7,000톤(냉동 12만 8,000톤, 신선 4만 8,000톤), 수입이 약 16만 9,000톤(냉동 14만 6,000톤, 신선 2만 4,000톤).
- 다랑어 전용의 초저온 냉장고에서 출고되어, 미자키 어시장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대 눈다랑어의 하등품의 하한가가 12월에 들어서며 킬로당 400엔이라는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작년 말, 800엔을 상회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반 가격에 불과.
- 냉동 참다랑어 시세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잉감과 공급이 팽배한 눈다랑어가 작년 봄경에 가격이 내려가자 뒤를 이어 남방참다랑어가 작년 가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참다랑어의 가격폭락도 곧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넙치

- 넙치의 도매가가 전년보다 30% 하락하였으며, 동경·초키지 시장에선 선어로 1킬로 1,000~1,200엔, 활어도 1킬로 1,500~2,000엔이 중심으로 되어있음. 산리쿠나 관동 등 태평양쪽을 중심으로 품어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임.
- 관동에선 작년 11월경부터 품어가 계속 되고 있음. 치바현의 초시항에선 1월의 어획량이 23일까지 작년 1월의 2배가 되며 산지가격은 절반가격까지 내려감. 미야기현의 나카미나토항에서도 최근에 본격이 없는 품어로 방서선 세슘의 기준치 변동으로 작년 4~8월 휴어를 한 영향도 있음.

○ 향후 시장 전망

• (생) 참다랑어

- 천연물은 국내외모두 시즌이 아니며 어획량이 작아 입하량은 감소. 양식이 중심이 되며 카고시마, 나가사키, 와카야마에서 출하조정을 하여 감소입하가 될 전망. 시황은 5000~2000엔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 (냉동) 눈다랑어, 황다랑어

-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입하하고 있지만 좋은 품질이 없는 상황. 시황은 눈다랑어 3,500~300엔, 황다랑어 2,500~200엔으로 예상.

• 한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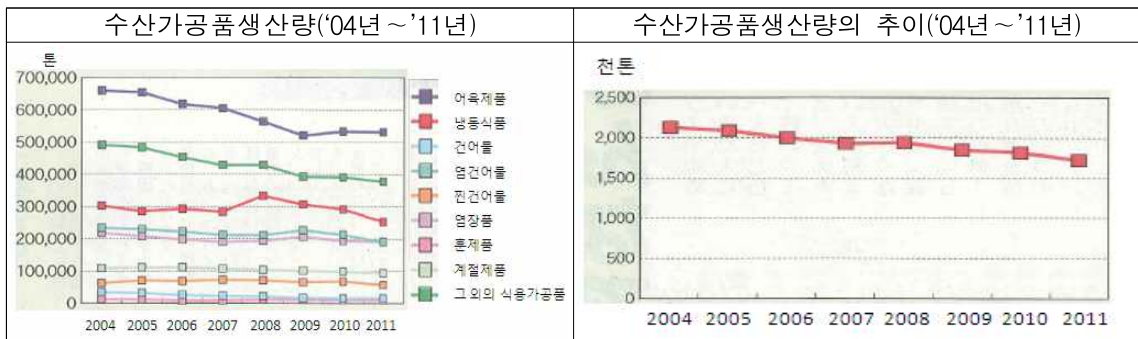
- 한국산 넙치의 품질이 좋아 입하가 증가하며, 아귀는 수입물은 한국산과 중국산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황 1,000~800엔.

□ [특정품목현황] 수산가공품의 생산과 소비

수산가공생산은 원료고, 원료부족, 전력 가격인상,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직면
간편 조리식품 등 시대에 맞는 니즈를 도입하며 새로운 상품개발이 열쇠.

○ 생산

- 식료품은 신선품의 매출이 감소경향에 있어 조리가 간편한 가공품과 반찬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산 품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수산가공품 생산량으로 보아선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농림수산성의 “수산가공통계”를 보면 ‘02년부터 ‘11년까지의 생산량은 하향 추세이다. 생산량은 어 획량이나 가격과 연동하고 있으며, 어육제품이 13만톤 감소로 나타난 이유는 어육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것이다.
- 가계소비지출과 비교하면 생산이 침체되었던 ‘08년과 ‘09년의 지출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원 료가격인상에 따른 소매가격인상 및 봉지당의 양을 소량화 했기 때문이다.
- 냉동식품은 “어개류”와 “수산물조리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양쪽모두 ‘08년을 최고치로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
- ‘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향과 비교해 큰 침체는 되지 않았다. 각 품목별로 보면 이와테나현이나 미야기현에 가공장이 집중되었던 품목은 감소로 보였으나 그 이 외는 피해지 이외의 가공장에서 커버한 것으로 보인다.



○ 소비

- 총무성이 조사한 가계조사연보에 의하면 ‘11년의 소비지출(1세대당의 연간지출, 총세대)은 296만 6,673원으로 전년보다 6만1265원 감소. 1개월당의 지출로 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2.0%(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수가 아님) 감소로 나타난다.
- 소비지출 중 어개류를 보면 ‘11년의 지출액은 6만4,441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614원 감소하였으며 어개류는 소비지출의 8.4%를 차지한다.
- 어개류 지출 내역 중 주요 수산가공품에서 전년의 지출을 상회한 품목은 “어개류의 통조림”과 “말린 전갱이” 정도로 그 외의 품목은 전년을 하회하는 어려운 상황이 뚜렷히 나타났다.

